

## 학술논문 :

정일권. (2012). 개인의 의견표명 회피 행위의 유형과 해석. 사회과학논집. 43(1). 25-45.

## 요약 :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적 틀 중에서 선거철만 되면 꼭 등장하는 것이 침묵의 나선(spiral or silence) 이론이다. 1970년대 초반에 노엘레-노이만(Noelle-Neumann)에 의해 소개된 침묵의 나선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소수자 의견을 표명할 때 고립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은 고립의 두려움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적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우선 무엇이 소수 의견인지를 매스 미디어를 통해 파악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의견이 소수 의견이라고 지각하면 의견표명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각된 다수가 실제적인 다수로 전환된다. 노엘레-노이만은 실제의 다수의견이 아니라 지각된 다수의견이 사회적 압력을 낳는 핵심 요인이며 이러한 지각 과정에 매스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 것이다.

이 연구는 침묵의 나선 이론의 핵심적 주장과 관련해서 세 개의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RQ1: 실제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무엇인가?

RQ2: 실제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보이는 침묵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RQ3: 매스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여론 기후에 대한 단서는 실제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에서 개인의 의견 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실제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 위해 침묵 이외의 어떤 수단을 동원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참여자들이 자기 의견표명을 회피하려고 침묵과 같이 의견 표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신에 자기의 의견표명의 내용과 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찬성 의견 다음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참여자는 자신의 의견은 내놓지 않고 타인의 경험만을 소개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실제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보이는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우선 침묵은 의견표명 의지가 없음을 의미할 때도 있었지만 동조를 의미할 경우도 많았다. 침묵이 의견표명의지가 없는 경우도 자기 의견을 소수로 인식해서라기보다는 특별히 의견을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일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처음에 이슈에 대해 자기 의견을 몇 차례 내놓다가 각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몇 차례 의견을 지닌 사람들을 설득해보다가 더 이상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상대가 설득될 수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내가 말해봐야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미 나랑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의견 표명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에 관한 것이었다. 즉 매스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여론 기후에 대한 단서가 실제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자신의 의견과 불일치하는 여론 동향의 단서를 매스 미디어로부터 제공받은 참여자들 중 소수 의견 지각자들은 의견표명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조금 완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 **채택한 이론 및 현상과의 연결 :**

집단에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혹은 거짓되게 표현하는 것은 많은 부분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는 것, 즉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을까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깊다 (Brown & Levinson, 1987; Goffman, 1967). 자신의 얼굴 혹은 상대방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우리는 불화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게 된다(Brown & Levinson, 1987). 따라서 상대방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고개를 상하로 끄덕여 상대방이 얼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한다(Brown & Levinson, 1987).

이렇게 비언어적 표현으로 전달되는 정보가 대화상대자의 진정한 반응을 추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침묵의 나선 이론과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 비언어적 단서는 상대방 의견의 지각, 내 의견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언어적 단서에 따라 내가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 혹은 불안감이 변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을 변인화하는 연구는 실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의 의견교류 행위와 타인 혹은 집단 의견 인지 과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